

2025 제11회
대학생
통일모의국무회의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누구나 쉽게 경연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2025 제11회
통일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2025. 3

주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통일교육사업단

후원: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목 차

1. 통일모의국무회의의 길라잡이

1) 개요

- 국무회의란?
- 통일모의국무회의란?

2) 제11회 통일모의국무회의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준비

- 팀 구성하기
- 정책 주제(안건) 선정하기
- 직책 부처 설정하기
- 각 팀원의 수행 직책 결정하기 (역할 나누기)
- 수행 직책별로 안건에 대한 부처별 의견 작성하기
- 부처 간 토론 쟁점을 찾아내어 갈등과 대립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기
- 안건 및 정책 의결하기

3) 대본을 작성하는 방법

- 대본 작성을 위한 기획 회의하기
- 대본 작성의 개요 및 내용 정리하기
- 대본의 표지와 내지 구성

4) 정책 주제 소개 (제1회~제10회 경연의 수상팀 정책 주제 모음)

2. 제11회 통일모의국무회의의 경연대회 시행 안내

- 1) 목적 및 개요
- 2) 시행 주제
- 3) 시행 내용
- 4) 시상 내역
- 5) 심사 기준
- 6) 대회 일정
- 7) 문의

3. 경연 참가를 위한 제출 서류 양식

- 1) 참가신청서 양식
- 2) 대본의 예

4. 수상 수기의 예

- 1) 최우수상 수상 수기
- 2) 우수상 수상 수기
- 3) 장려상 수상 수기

5. 예선 및 결선 경연 현장

1. 통일모의국무회의 길라잡이

1) 개요

Tip 1> 모의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선 국무회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아래 국무회의 의사 규칙을 숙지하고 대본에 반영하면 좋습니다.

① 국무회의란?

가. 국무회의란 대통령이 하는 일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정책을 심의하며 의결하는 최고정책 심의기관입니다.

나.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정책이란?

-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2) 선전 및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대통령령안
- (4) 예산 및 결산,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 (5) 대통령의 비상조치 또는 계엄과 그 해제
-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 (7) 국회의 해산
- (8)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의 요구
- (9) 영전수여
- (10) 사면 및 감형과 복권
- (11) 행정 각부간의 권한 확정
- (12) 정부안의 권한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 (13) 국정처리상황의 평가 및 분석
- (14) 행정 각 부의 중요정책 수립과 조정
- (15) 정당해산의 제소
- (16)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에 대한 심사
- (17) 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검찰총장·국립대학교 총장·대사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 (18) 기타 대통령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등입니다.

다.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며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의 구성원입니다.

라. 국무회의를 여는 진행순서는 개회-국민의례-개식사-주요안건 토의 및 처리-폐회입니다.

마. 국무회의에서 모든 국무위원의 자격은 동등하며 다수결에 의한 합의 의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구성원 1/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사. 결정한 사항들을 추진합니다.

② 통일모의국무회의란?

- 가. 모의국무회의란 실제 국무회의 형태를 모델로 하여 학생들이 대통령 이하 각 부처 장관의 역할을 맡아 진행하는 정책 토론 회의입니다.
- 나. 주요 정책의 범위는 통일 단계 이전부터 통일 이후 시기까지의 대한민국입니다.
- 다.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참여의식으로 통일 정책을 발굴합니다.
- 라. 정책을 선정하여 모의국무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가치를 키웁니다.
- 마. 다른 부처 간의 협이나 논쟁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통일의식을 지닙니다.
- 바. 모의국무회의를 완성하면서 국가의 통일 정책에 참여해 본 주인공으로서의 자부심과 성취감을 체득합니다.

2) 제11회 통일모의국무회의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준비

Tip 2> 통일모의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의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고 준비하면 연습, 복습의 과정처럼 체계적인 학습 효과가 이루어집니다.

① 팀 구성하기

- 동아리 혹은 함께 공부하는 학과 선,후배, 동료, 친구들과 마음을 합하여 경연대회의 참여를 위해 팀을 구성합니다. 팀원의 인원은 대통령을 포함하여 6명에서 13명까지 가능합니다.
- 경연 참여 및 진행이 수월할 수 있도록 팀 대표(팀장)를 선출합니다.
- 모두 한마음으로 경연의 취지에 적합한 팀명을 정하여 소속감과 자신감을 지닙니다.

② 정책 주제 및 안건 선정하기

Tip 3> 통일 단계 이전부터 통일 이후 시기까지의 대한민국을 가상하는 만큼, “통일편익”에 중점을 두어 안건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건의 전개>

- 총 시간이 5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장관이 각 부처 별 상황과 입장에 따른 의견을 발표하고 안건을 구성하여 여러 부처가 서로 간의 문제점과 갈등을 극복하고 ‘협업’하여 유익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합니다.

<관련 자료>

- 안건 선정 관련 자료는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에서 통일미래 비전과 관련된 자료를 찾거나,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통일한국 2040 보고서), 현대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DBpia, 국회도서관 등의 논문자료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준비 포인트>

- 제1회~제10회(2015년~2024년)에 실시한 통일모의국무회의의 경연대회의 수상작을 참조하여도 좋습니다. 통일모의국무회의의 카페(<http://cafe.daum.net/unifi2016>)에 해마다 게시된 길라잡이를 참조하여 수상팀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의 대한민국을 상상해 봅니다.
- 통일 직전의 혼란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통일 후 변화의 성장을 이루어 가는 통일모의국무회의라고 생각하면 결정해야 할 주요 안건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일이 이루어진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경제 핵심이 될 것이고 국내, 국외의 위상을 떨치는 국력을 세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Tip 4> 아래 자료를 통해 통일이 가져다 주는 국내,외적 편익을 알아보고 통일모의국무회의 토의 안건 선정에 참여해 보세요.

(통일의 국내·외적 편익)

- ✓ 인구 강국 : 통일로 저출산·고령화·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
 - ✓ 군비 감축에 따른 재정 효율성 증대
 - ✓ 노동 생산성 향상에 따른 산업 생산성 증대
 - ✓ 신용등급이 상향되는 통일 한반도
 - ✓ 고용 창출
 - ✓ 관광 및 자원 대국
 - ✓ 통일 한반도의 안보적 편익과 인도적 편익
 - ✓ 통일 한반도의 문화적 편익
 - ✓ 통일 한반도·중·일·러 동북아경제공동체 탄생
 - ✓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탄생
 - ✓ 국제 안보적 편익 :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
 - ✓ 규범·문화적 편익
- 정책 안건 선정이 모의국무회의 개최의 주축이 되며 정책 심의 및 의결에 이르기까지의 근간을 이룹니다.

③ 직책 부처 설정하기 (국무위원)

Tip 5> 현 정부의 주요 직책 부처가 하는 일을 살펴보면 선정된 주요 정책에 합당한 부처를 선정하기가 쉬워집니다.

- 구성된 팀의 인원과 국무회의에서 다룰 정책 주제가 결정되면 팀의 인원과 정책의 특성에 맞는 직책 부처들을 설정합니다.
- 팀 구성은 대통령을 포함하여 6개의 부처에서 13개 부처입니다.

- 부처는 기획재정부장관, 국토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외교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환경부장관, 국방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며 직책 부처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현재의 정부 구성을 기본으로 하지만 통일 이후의 상황이라면 직책 부처명은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하며 변경할 경우엔 현재의 부처 이름을 병기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중요도에 따라 현 부처의 업무를 분리하여 독립시키거나 신설 부처도 창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Energy)부, 세계문화교류부, 남북관광자원개발부 등

④ 각 팀원의 수행 직책 결정하기 (역할 나누기)

Tip 6> 팀원들의 성격과 재능을 고려하여 각각의 수행 직책을 결정하면 훨씬 흥미롭고 사실적인 모의국무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정책 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역할을 나눕니다.
- 각 정책 부처의 목적과 성격을 자세하게 조사합니다.
- 영상,음향 효과를 활용하여 각각의 특성에 따라 수행 직책의 임무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⑤ 수행 직책별로 선정 주제에 대한 부처별 의견 작성하기

Tip 7> 정책 주제에 대한 부처별 의견을 구성하고 정리하면 토론 쟁점을 찾고 대본을 작성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 각 주무부처들은 정책 안전에 대한 입장과 자세, 의무등의 기본 의견을 작성합니다.
- 통일 이전 혹은 통일 이후의 상황을 가정하여 해당 정책의 필요성과 문제점, 정책추진 원칙 및 고려사항, 대응방안 등을 담습니다. 이는 예시일 뿐, 자유롭게 작성하여 정책과 관련한 제언을 담으실 수도 있습니다.

⑥ 부처 간 토론 쟁점을 찾아내어 갈등과 대립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기

- 선정된 정책 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연관성과 현실적인 문제점을 모색합니다.
- 정책 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구성합니다.
- 한가지의 정책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다른 부처 간의 갈등과 대립이 치열해지기도 합니다. 직책 부처마다 운영 이익이 창출되어야 하므로 예민한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주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 담당 부처의 존재를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눈빛과 강한 몸짓 등의 표현도 좋으며 검증될 수 있는 사례 등의 예를 들어 줍니다.

⑦ 통일모의국무회의 안건에 대한 정책 의결하기

- 각각의 부처별 의견과 주장, 갈등과 대립들을 유지 시키면서도 토의 안건에 대한 정책 결정을 도출하여 긍정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줍니다.
- 의결된 정책이 모의국무회의의 기본 목적과 세부 사항에 잘 융합될 수 있도록 통일된 모의국무회의 구성을 완료합니다.

3) 대본을 작성하는 방법

① 대본 작성을 위한 기획 회의하기

Tip 9> 대본 전체 구성이 탄력적이어야만 모의국무회의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대본 작성을 위해 각 수행 직책별 의견과 주장을 취합합니다.
- 최대 5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모의국무회의를 진행할 지를 토의합니다.
- 대본의 전체적인 흐름은 서론(정책 배경), 본론(정책 심의, 토론), 결론(정책 의결, 결정)을 전제로 합니다.
- 정책 주제의 도입, 정책 주제에 대한 부처별 토론, 정책 주제에 대한 각 부처별 갈등과 반론, 협의, 의결을 위한 대단원으로 구성하여 정책 결정을 도출합니다.
- 기획 회의를 마무리하고 대본 작성을 시작합니다.

② 대본 작성의 개요 및 내용 정리하기

Tip 10> 서류 전형 후 예선에 진출하게 될 경우엔 보다 유연하게 진행하기 위해 대본을 약간씩 수정 혹은 첨가할 수 있으나 정책 주제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예선에서는 대본에 충실하게 모의국무회의를 시연하고 결선에서는 심화된 토론 단계로서 정책 검증 및 논쟁 방식의 경연을 진행합니다.

- 표지와 내지를 구분합니다. (총 30페이지 이내)
- 표지에는 제목, 정책 안건, 팀명 및 팀 대표 이름, 제출 날짜를 기재합니다.
- 내지에는 기획 및 요약서, 대본의 순서로 대본을 구성합니다.
대본 규격의 예를 들어보면 A4 사이즈로, 글자 포인트는 10 혹은 11, 행 간격 160, 상/하 여백 20mm, 좌/우 여백 25mm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대본에는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위해 각 국무위원들의 행동, 표정, 몸짓 등의 표현을 첨부해도 좋습니다.
- 기획 및 요약서는 대본이 전개되기 이전에 미리 기재합니다.
- 제출 서류인 참가신청서와 대본(기획 및 요약서 포함)은 모두 한글 파일로 제출함이 원칙이며 내용의 정확성 유지를 위해서 PDF 파일로도 함께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 대본 작성에 반영된 증거 및 확인 자료들을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③ 대본의 표지와 내지 구성 (총30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 분		내 용		페이지
1	표지	제 목	2025 제11회 통일모의국무회의 대본	총30 페이지 이내로 작성
2		정책 안건	정책 주제 혹은 모의국무회의 안건	
3		팀명 및 팀 대표 이름	팀명과 팀의 대표 이름 (대본에는 blind 심사를 위해 학교 및 연락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4		날짜	제출 날짜	
5	내지 1	기획 및 요약서	정책 및 안건에 대한 기획 의도 대본의 내용을 요약	
6	내지 2	등장인물 및 주요 정책	수행 직책 및 팀원 이름 (ex : 외교부장관 - 홍길동) 정책 및 안건 기재	
7		Chapter	각 Chapter별로 모의국무회의 대본 구성	
8	별첨 자료	대본 작성에 반영된 증거 및 확인 자료들을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첨부 유무는 자유)		

4) 정책 주제 소개 (제1회~제10회 경연의 수상팀 정책 주제 모음)

시행연도/슬로건	팀명	정책 주제
제1회 2015년 도약하라! 통일 10년 후의 대한민국	한맥	고구려 역사 문화단지 조성 계획 신의주 국제물류 산업도시화 추진
	UCC	백두산 화산 재해 대응 전략 한반도 북부지역 권역별 발전 전략
	북키스트	DMZ평화 클러스터 형성 실크로드 경제협력 기구 창설, 스마트 시티 구상
제2회 2016년 동북아 신 성장동력 통일한국!	통통배	동북아 농축산업 6차화 추진 방안 백두대간 산악관광 진흥 구역 지정 계획
	UNI	아시아 육상 교통망 재생 에너지 기반 확립 (에너지 지급 계획)
	UNI-DRAW	DMZ 국립공원 조성, 문화교육 개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한 "SOC"확충
제3회 2017년 통일, 그래서 더 행복한 대한민국	U-ZEN	폐군수 공장을 TCA(Technology-Culture-Art) 단지로 재건
	D-light	동북아 메디컬 허브 구축 계획
	한울	한반도 서북부지역 실리콘 벨리 개발 방안
제4회 2018년 평화와 번영, 모두가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쌍방통행 내일로	토지가치공유제를 기반으로 한 통일토지공사의 설치와 파생수익의 공공적 사용
	고래	통일한국의 정의실현 불법구금시설 인권 침해 피해자 보상
	부처, hands up!	통일특별시 구축에 대한 안건 Uni-City Project
	통's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불릴 노래, 남북 문화교육을 위한 "아리랑 계획"
제5회 2019년 평화와 번영의 통일한반도	도담도담	통일한국 스마트 E 정책
	통성명	통일한국의 중부지방 개발계획:오늘의 회복, 통일마을 조성 사업
	한반도미래연구회	동북아 번영을 위한 힘찬 도약: 한반도 에너지 협력 기금법
	깨.맘.자	한반도 방역협업본부 설치와 공동 방역 사업 방안

제6회 2020년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한반도!	온새미	푸른 한반도 프로젝트: ECOREA농업 클러스터 정책
	이음	청년들의 이등시민 정서 해결방안
	알리콘	개성·파주 접경지역 <평화신도시>건설 시범사업
	쿠니	4차 산업혁명 기반으로 통일한국 스마트 시티 정책
제7회 2021년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통일 한반도!	넘어넘어	강원공유도를 통한 한반도 균형발전- DIA정책
	한반도미래연구회	창조를 통한 포용 정책 신도시 개발
	하랑	통일 직후 한반도 안정화를 위한 '3P정책과 新구본신참 정책'
	평양냉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에 선 제3의 생태도시
제8회 2022년 통일한국을 디자인하다	새록새록	한반도 그린테크 클러스트 구축
	평화조화	통일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특구 조성
	PASS	한반도 도담도담 정책- 한반도 교류 활성화 방안
	EPAS	유라시아 철도 FTA를 바탕으로 한 국내 행정 운영
제9회 2023년 통일미래를 준비하다	아우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Road NO. 1 “평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정책”
	이음혜음	하이 그린 시티 프로젝트 북동해양미래도시 조성-이음가치실현
	코스몹	요덕 전통 의학 단지
	한국정치연구회	CRPP(Cooperation in the International River Pollution Problem) 계획과 Aqua-Belt 조성 사업
제10회 2024년 통일로! 미래로!	다기치	이북지역 교육 ‘마스터 플랜’ 배움으로 하나되는 한반도
	우리동네 폴리틱스	평안북부 서북부 통합 국제특별자치시 추진 정책 ‘압록국제특별자치시’
	난파법학회	연안이음도시 ‘연안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통일온	The New Central One Project -통일된 한반도, 균형 발전의 축-

2. 2025 제11회 통일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시행 안내

주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통일교육사업단

후원: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0. 목적 및 개요

- 통일 미래세대에서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관한 통찰력 증진
- 통일 단계 이전부터 통일 이후의 시기까지 한국 사회의 변화에 관한 대학생들의 관심 제고와 참여의식 함양

1) 경연 주제

통일 단계 이전부터 통일 이후 시기까지의 상황을 가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상을 상상하여 평가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는 과정을 자유롭게 시연하고 토론합니다. (참가자들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수행 직책과 관련한 계획, 정책 등을 자유롭게 선정하여 모의국무회의의 시연 및 토론)

2) 참가 신청

- ▶ 참가 자격 : 전국 대학 및 대학교의 대학생 (휴학생 포함)
- ▶ 접수 방법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https://sejong.korea.ac.kr> 혹은 통일모의국무회의 카페(<http://cafe.daum.net/unifi2016>)를 통해 참가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참가신청서와 모의국무회의 대본 (50분용)을 작성하여 한글파일로 메일 접수 (unifi2016@daum.net)
- ▶ 참가비 없음
- ▶ 팀 구성 : 1팀당 최소 6명에서 최대 13명까지 구성
- ▶ 수행 직책 :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장관 가운데 대통령 1인 및 5개 부처 이상의 장관들이 각 부처별 의제와 정책들을 발표. 부처 선정은 자율적으로 진행 (현재의 정부 구성을 기본으로 하나 부처명의 경우 통일 이후의 상황에는 자율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부처명을 현재의 부처명으로 병기)
- ▶ 대본의 분량 : 정책 주제를 중심으로 50분간의 국무회의의 시연 내용으로 준비

3) 시상 내역

- 최우수상 : 상금 400만원 및 통일부장관상
- 우수상 : 상금 200만원 및 국립통일교육원장상
- 장려상 1 : 상금 100만원 및 고려대학교 부총장상
- 장려상 2 : 상금 100만원 및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장상

4) 심사 기준

- 심사 기준 : 소재의 참신성, 자료 준비 및 활용도, 미래통일정책에 대한 공헌도, 의사소통능력, 국무회의 목적 달성도, 자세 및 팀워크 등

5) 대회 일정

- 서류 신청 및 접수 기간 : 4월 28일(월) ~ 5월 10일(토/24시까지 이메일 접수 및 종료)
- 서류 심사 결과 발표 : 5월 13일(화) 오후 6시 (합격 팀에 한해 개별 통지)
- 예선 : 5월 17일(토) 오후 1시 - 팀당 50분간 진행 (결선 4개 팀 선정)
- 결선 : 5월 31일(토) 오후 1시 - 팀당 15분간 발표 후 정책토론 토너먼트를 진행

6) 문의

전화 : 02-6053-2001 <제11회 통일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사무국>

통일모의국무회의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unifi2016>

전자우편 : unifi2016@daum.net

2024 제10회 통일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결선 동영상 보기

<https://cafe.daum.net/unifi2016/eykZ/72?svc=cafeapi>

<예선 경연 일정표>

- 일정 및 장소(예정) : 5월 17일(토) 13:00~17:00 / 국립통일교육원
- 경연 방식 (8개 팀) : 2개 팀씩 순차적으로 경연 대회 실시
- 결선 진출 팀 선정 : 총 8개 예선 팀 → 4개 팀 최종 선정 (결선 진출)

<예선 진행표>

시 간	경연장 ①	경연장 ②	기타
11:00~13:00	분임실 팀활동, 예선 경연 준비 1		
13:00~13:50	1조 1팀 경연	2조 1팀 경연	경연장 1,2 (경연 후 귀가)
	심사위원 관리교사	심사위원 관리교사	
13:50~14:00	예선 경연 준비 2		
14:00~14:50	1조 2팀 경연	2조 2팀 경연	경연장 1,2 (경연 후 귀가)
	심사위원 관리교사	심사위원 관리교사	
14:50~15:00	예선 경연 준비 3		
15:00~15:50	1조 3팀 경연	2조 3팀 경연	경연장 1,2 (경연 후 귀가)
	심사위원 관리교사	심사위원 관리교사	
15:50~16:00	예선 경연 준비 4		
16:00~16:50	1조 4팀 경연	2조 4팀 경연	경연장 1,2 (경연 후 귀가)
	심사위원 관리교사	심사위원 관리교사	
16:50~	8개 팀 평가표 취합 및 협의, 결선 진출 4개 팀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심사 위원실

<결선 경연 일정표>

- 일정 및 장소(예정) : 5월 31일(토) 13:00~16:30 / 국립통일교육원
- 경연 방식 (4개 팀) : 정책 발표 및 토론 배틀
(지정공격 및 방어 / 자유공격 및 방어)
- 결선 진행표 (경연 방식)

시 간	내 용		
11:00~12:50	출전팀 오리엔테이션, 심사위원 회의, 경연 준비		
13:00~13:30	개회식 (격려사, 개회사, 심사위원 소개, 출전팀 소개)		
13:30~14:30	1부 (정책 발표)	정책 발표	4개 팀 15분씩 정책 발표 (발표 방식 : 대통령 모두발언-각 정책부처 발언- 의결된 정책에 대한 총론)
14:30~14:40	휴 식		2부 대회 준비
14:40~15:50	2부 (정책 토론 및 검증)	지정공격 및 방어 (20분)	각 팀 대표(3명씩) 출전, 상대 팀 발표 정책에 대한 반론 및 대응
		작전 타임 (2분)	각 팀 의견 정비 및 자유 토론 전략 수립
		자유공격 및 방어 (20분)	각 팀 대표 전원 자유논쟁. 상대 정책의 오류 및 허점 공략,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대응 및 방어
		작전 타임 (2분)	각 팀의 최종 변론 정리를 위한 준비
		최종 변론 스피치 (15분)	상대 팀에 대한 반론 포함, 자신의 팀에 대한 강점 및 타당성 전달, 감성에 호소할 수도 있는 스피치 능력 표출
15:50~16:10	심사 협의		
16:10~16:30	결과 발표 및 시상식		

3. 경연 참가를 위한 제출 서류 양식

1) 참가신청서 양식

가. 팀 소개

팀 명	팀 인원	총 (명)
팀 소개	(팀명의 의미, 참가 의지, 준비 자세등 간단히 기재)	

나. 팀 대표 소개

팀장 성명	생년월일
소 속	(팀장 소속 대학, 학과)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다. 대본의 정책 주제

(모의국무회의의 정책 주제를 간단히 기재)

위와 같이 2025 통일모의국무회의의 경연대회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_____

고려대학교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 귀중

라. 팀 명단 및 내용 (팀 대표 포함하여 기재)

	이름	학교 및 학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역할 부처명
			이메일 주소		
1					
			(e-mail)		
2					
			(e-mail)		
3					
			(e-mail)		
4					
			(e-mail)		
5					
			(e-mail)		
6					
			(e-mail)		
7					
			(e-mail)		
8					
			(e-mail)		
9					
			(e-mail)		
10					
			(e-mail)		
11					
			(e-mail)		
12					
			(e-mail)		
13					
			(e-mail)		

2) 대본의 예

기획서 및 대본

〈아우름〉 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Road NO.1 평성

- 평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정책 -



정책기획서 및 요약서

I 참여등기

통일에 관한 관심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현 세태임에도 불구하고 팀 구성원들은 비교적 무감각했다. 그러나 얼마 전 언론에서 20, 30대 한국인의 절반 이상은 통일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긴다는 충격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다시금 통일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평소 팀원 개개인 모두가 정치 및 시사에 관련된 뉴스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현실적 문제에 대해 깊게 토론하고 정책을 구상한 경험은 전무했다. 이에 '아우름' 팀원들은 통일모의국무회의를 통해 직접 통일 이후의 정책을 수립하며 통일의 필요성과 관심을 제고시키는 작은 변화와 행동에 조금이라도 일조하려 한다.

한편 모의 국무회의를 통해 얻게 되는 경험은 스스로를 발전시킬 기회이며, 실제 국무회의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회를 통해 현실을 미리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성원 모두가 참여를 희망하였다. 무엇보다 모두가 정치외교학과 전공생으로 강의 시간에 이론으로만 접했던 북한의 현실에 대해 숙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다. 또한 반도체 법으로 인해 새로운 변화와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통일된 한국에서 이를 주제로 난관을 극복할 정책적인 해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본 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II 추진배경

통일 한국의 미래를 생각해보며 현실 상황을 바탕으로 통일 한국의 상황을 가정해보았다.

2027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남북한 주도로 동북아 경제 블록의 대두와 영구적 평화 구축이 화제로 대두되면서 종전 당사국인 남한, 북한, 유엔군, 중국 간 여러 차례의 실무협상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물로 다자간 협정을 통한 종전 선언이 최종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그리고 종전 선언과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결국 명분을 잃고 해제되기에 이른다. 이후 양국간 적대행위를 종식하고, 공동번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통합을 이루기 위한 논의와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다. 남북측 주도로 한민족 통합 위원회가 설치되어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기도 했다. 첫 번째 활동으로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내 해상풍력단지 조성중에 있다. 또한 2035년부터 휴전선 상하 200km 지역에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반도 38평화 벨트를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시범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양국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한다.

한반도 38 평화 벨트에는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의 초기 모델로서 우선 향후 미래 사회에서 엄청난 수요가 예상되는 반도체 산업, 특히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특화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이를 공동 운영하며, 북한의 낙후된 사회문화 및 산업 인프라의 구축과 양국간 경제 격차의 직접적 해소함을 주요 목표로 한다.

III

문제인식

1. 현재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국가경쟁력

반도체 제조 분야에는 자체 인프라를 기반으로 일괄 생산하는 종합반도체(IDM)와 특정 고객사나 반도체 설계전문업체로부터 위탁받아 제조만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가 있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은 현재까지 삼성이 세계 1위이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는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초미세 공정 파운드리부터 조립, 테스트, 패키징(ATP)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만을 보면 TSMC 한 기업이 독자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성공시키고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다. 반도체가 앞으로 우리 미래산업의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만큼 우리도 국가 차원에서의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 북측의 경제 자립과 격차 해소를 위한 산업 인프라 구축의 시급성

통일된 한국에서는 북한의 지역경제 발전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남측과 북측의 발전전략이 경쟁과 중첩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남과 북의 산업구조를 유기적으로 재편하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계획하여 실시해야 한다. 두 지역간의 기술 격차를 우려하여 무조건 신기술 혹은 첨단기술 산업에 불리하다고 북한지역을 일방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되며, 통일과 그에 따른 경제통합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미래 경쟁력을 가진 산업들이 북한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북한지역이 일정한 기술 수준과 역량을 갖추면 통일 한국의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이 제고되는 호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통일된 독일의 교훈을 벤치마킹

2011년 이후 독일의 클러스터 정책은 융합적인 혁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혁신 클러스터의 배경에는 통일 이후의 새로운 독일 연방 국가를 위하여 구동독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특정 기술, 과학, 비즈니스 기술 등을 정립하고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둔 정책이 자리하고 있었다. 주요 목적은 지역 비즈니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산학연 핵심그룹과 연계한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의 독일 클러스터 정책이 완성되기까지 통일 후 독일이 겪은 상황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대표적으로 군사용 렌즈를 보급하던 칼 자이스는 분단과 함께 기업도 동서로 갈라졌다. 통일 이후 독일 각지에 흩어진 기업을 통합시키기로 했지만, 동독 기업은 서독 기업 못지않은 기술 진보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체제였다는 한계점에 따라 2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정리되고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지금은 예나 시 전체가 자이스를 중심으로 네트워크화 되어 돌아가고 있다. 이 선례는 통일 후 독일보다 경제적 격차가 심한 통일 한국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한쪽 사람들이 자본을 앞세워 다른 한쪽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을 때까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값비싼 교훈을 준다.

그래서 서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낙후된 동독의 드레스덴에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 학교와 연구소를 대거 유치하는 등 연구기관 밀집 지역으로 집중육성 하였다. 그리고 연구성과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인피니온, AMD, 폭스바겐 등 세계적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하였다. 정부 주도의 지원은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의 선순환을 이끌었으며 유럽 최고의 첨단과학 도시로 거듭났고, 1인당 구매력 매년 7% 상승, 실업률은 최대로 감소하면서도 인구는 가장 빨리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를 참조하여 북측에도 첨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IV

평성 반도체 클러스터란?

1. 클러스터란?

연관이 있는 산업의 기업과 기관들이 한곳에 모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산업집적단지를 뜻한다.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 및 개발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연구소와 각종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벤처 캐피탈, 컨설팅 등의 기관이 한곳에 모여 있어 정보와 지식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2. 왜 평성인가?

평성시는 과학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1960년대 만들어진 신도시다. 우리는 새 클러스터를 조성할 구역으로 평성시 중에서도 상대동, 구교동 일대를 주목하였다.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고려하는 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산학협력이다. 반도체 장비산업은 전문화된 구성품 생산업체와의 네트워크에 의한 긴밀한 협력관계가 중요하다. 따라서 고가의 반도체 장비 부품 및 구성품의 공급이 용이한 장소로 선정해야 하며 기술력 있는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협력업체와의 교류가 쉬운 곳일수록 경쟁력이 있다. 평성시의 해당 구역은 평양시 최북단에 있는 은정 첨단기술 개발구와 접하고 있는데, 은정 첨단기술 개발구에는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대학이 자리 잡고 있어 연구진의 교류에도 용이하며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및 지역 대학 연계 측면에서도 평성시에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유리하리라 판단되었습니다. 또 평성의 경우 평성 공업대학 외에 다양한 대학이 자리 잡고 있다.

두 번째는 물류 경쟁력과 수송의 편의성이다. 반도체 장비는 고가이며 크기가 큰 제품이 많기 때문에 고속도로나 국도로의 접근성이 수월한 위치가 유리하다. 평성의 경우 인근에 평성역, 봉학역, 조금 떨어진 곳에 자산역이 있으며 평라선이 지나가고 평양에서 강계로 이어지는 1급 도로도 지나고 있다. 이 밖에도 평성~강동, 평성~순안 간 도로가 개설되어 교통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광상들의 중간지점에 있기 때문에 도로 개통 및 제반 시설 설립에도 유리한 점이 많다.

세 번째는 접근성이다. 평성시는 평양에서도 자동차로 30여 분의 거리에 있어 출퇴근이 용이하고 위성도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다가 고급 인력을 선호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조건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 장차 클러스터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때는 평지를 따라서 좀 더 북쪽으로는 확대도 가능하다.

V

주요 논의 사항

1. 산학연 연계 및 정책 지원 방안

세부 내용	담당부처
가.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반도체 기업 유치 방안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전문 업체 육성 방안	중소벤처기업부

2. 반도체 핵심 광물 원료 확보 및 수송로

세부 내용	담당부처
가. 반도체 생산 과정과 핵심 광물에 대한 간략한 이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북한의 주요 광상 (금)	산업통상자원부
다. 북한의 주요 철도노선	국토교통부
라. 반도체 클러스터 순환 트램	국토교통부

3. 지속가능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세부 내용	담당부처
가. 안정적 전력 공급 방안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나. 초순수 공업용수 확보 및 오·폐수 처리방안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VI

기대효과

1. 통일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

2. 북측의 지하자원 이용 및 시스템 반도체 산업 특성화를 통한 공동번영

3. 국내 생산기반 확보를 통한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자력 구축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디에 생산시설을 설립해도 각 국의 외교정책이나 국내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한 각종 법규, 지정학적 위치의 위험성 때문에 변수가 많아 언제든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미·중 간 패권 경쟁은 앞으로 20~30년 동안은 이어질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어느 한 쪽만의 성공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국내생산 기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과 신규 시설에 대한 규제와 토지 보상이 등의 여러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남측보다는 개발이 필요하고 자원이 풍부한 북측의 개발은 분명한 이점이 존재한다.

4.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Road NO.1 평성의 브랜드화

대전, 세종, 천안을 지나 기존의 반도체 생산단지인 평택, 용인, 기흥, 화성, 이천과 연결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Road NO.1 이 통일된 국가의 평성까지 연결되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구축된다면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국가 반도체 생태계가 튼튼하게 형성될 수 있다.

대본 요약

I. 추진배경

-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남·북측 간 경제 격차가 큼.
- 통일된 독일의 '드레스덴 모델'을 모티브로 하여 한반도 통일된 독일의 '드레스덴 모델'을 모티브로 하여 한반도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들간 경제수준 격차를 줄여야 함.
-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안정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동시에 시스템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단위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조성이 필요.
- 북한지역이 일정한 기술 수준과 역량을 갖춰 통일 한반도의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이 제고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

II. 세부 안건

1. 평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정책의 필요성

가. 반도체 산업의 육성 필요성과 시스템 반도체 전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반도체가 안보 자산이자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됨.
-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전망은 밝으나 대한민국 시장은 경쟁력 측면에서 수십 년간 정체 중임.
-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 주도의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

나. 클러스터란? 클러스터의 방향성 - 산업통상자원부

- 클러스터란, 연관이 있는 산업 분야의 기업과 기관들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산업체 집적 단지임.
- 핵심 광물 등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인적 자원을 이용하여 미래 경쟁력을 갖춘 성장을 목표로 평성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계획.
- 평성 반도체 클러스터 내 교육 및 연구기관의 설립을 통해 유기적 산업 생태계 육성하고 국내외의 우수한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며, 인재를 배양하여 관련 산업 육성 등을 기대.

다. 평성 클러스터 단지 조성 계획 -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평성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 평안남도 평성시 상대동, 구교동 일대 11.78 km²
- 산학협력, 물류 경쟁력과 수송의 편의성, 접근성을 이유로 평성을 택함.

2. 산학연 연계 및 정책 지원 방안

가.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평성과학기술원(PIST)이라는 새로운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설립한 후 반도체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다양한 장학제도를 펴는 등 적극적인 관리.
- 남측의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MOU 체결하고 대학간 협력체제 구축하여 공동 프로그램과 인적교류 추진.
- 스마트기기 제공 및 취업 연계 활성화에 대한 유관 부처와 논의 계획.

나. 반도체 기업 유치 방안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 국내외 이공계 대학의 연구 협력 및 세미나 개최, 비즈니스 포럼 개최 등을 통해 클러스터 형성 필요사항에 대한 국제적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협력 MOU를 체결할 계획
- 또한, 반도체산업 선진국인 미국과 대만을 참고하여 세액공제 혜택의 방안으로 개선된

임시세액 공제법을 부활

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전문 업체 육성 방안 - 중소벤처기업부

- 파운드리 기업들과 팹리스 기업의 상생협의회를 독려하는 등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
- 팹리스 기업의 초기사업화 자금과 운전자금의 지원 한도를 두 배 이상 확대하는 창업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
-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반도체 설계 인력풀 양성 정책과 관련된 연계된 지원 정책 고려

3. 반도체 핵심 광물 원료 확보 및 수송로

가. 반도체 생산 과정과 핵심 광물에 대한 간략한 이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반도체의 전체 공정과정은 1차 광물 채취, 2차 고순도 광물로의 가공, 3차 반도체 생산으로 이루어짐.
- 반도체 생산을 위한 주된 광물은 규소, 텅스텐, 마그네슘, 금 등.
- 그중 금은 패키징 단계에서 와이어에 이용되는 재료로 초고순도 가공이 필요함.

나. 북한의 주요 광상 (금) - 산업통상자원부

- 북측에는 대표적인 9개의 금 광상 및 광산이 존재
- 그 중 운산 광산은 잔존 매장량이 금만 15톤으로 금을 공급하기에 적합

다. 북한의 주요 철도노선 - 국토교통부

- 평성은 운산 광산을 포함한 대부분의 광산 및 광상과 인접한 철도로 연결되어 있음.
- 운산 광산은 약 230km의 거리를 평덕선과 평라선을 통해 광물을 수송할 수 있음.

라. 반도체 클러스터 순환 트램 - 국토교통부

- 교통 측면에선 기존 평라선과의 연결을 고려하는 평성 반도체 클러스터 순환 트램을 계획
- 배터리를 통해 동력을 공급받는 경제적인 '무가선 트램' 계획 중.
- 노선은 총 길이 15.9km이며 평균 0.9km 간격으로 역을 배치하여 총 17개의 역이 존재함.

4. 지속가능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가. 안정적 전력 공급 방안 -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 평성 지역 전력 공급량 확충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의 제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 시 점차 전력 사용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반도체 공장을 초기부터 스마트 팩토리로 설계하기를 제안함.

나. 공업용수 확보 및 오·폐수 처리방안 -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 최첨단 폐수처리장 설치와 공업용수 재활용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공하수처리장에 적용된 다단계 정화 처리를 거친 방류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할 계획임.
- 정부의 지원을 통해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이 '신 환경경영전략'이라는 국제적 추세와 새로운 경영 방침을 고수하게 하여 산업 오·폐수 문제를 해결할 것임.
-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정화한 공업용수는 대동강으로 방류할 예정
- 대동강까지의 수로 건설 방안은 국토교통부와 추가로 논의할 사항임.

대본 (50분용)

제목: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Road NO. 1 평성 평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정책

주요 안건

평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정책 추진 방안 - 남북측 경제 격차 해소 및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세부 안건

- ① 평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 ② 산학연 연계 및 정책 지원 방안
- ③ 반도체 핵심 광물 원료 확보 및 수송로
- ④ 지속가능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장인물

대통령 (장은성), 국무총리 (박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성준), 교육부 장관 (김민채),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경), 기획재정부 장관 (박준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윤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규리), 환경부 장관 (홍윤아)

#Chapter 1. 국무회의 개최 선언 및 국민 의례

(각 부처 장관끼리 시끌벅적 악수하며 인사를 나눈다)

대통령

(자리에 앉으며)

2030년도 3월 10일, 국무위원 15인 중 9인이 출석하여 과반수가 참석했으므로 개의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30년도 제1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린다. 땡! 땡! 땡!)

국무총리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난 후)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민의례 음악 재생)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는다)

다음은 대통령님의 모두 발언이 있습니다.

#Chapter 2. 대통령 모두 발언

대통령

(국무위원들을 둘러보면서) 이번 제10회 국무회의는 남북한 경제 격차 해소 및 안정적인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평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정책의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클러스터 조성 정책과 관련된 세부 안건은 총 4개입니다. 정책 제안부터 산학연 협력 시스템, 교통, 환경까지 순서대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료를 검토하면서) 우선, 우리 통일 한국은 종전 선언 이후 양국 간 적대행위를 종식한 바 있습니다. 또, 남북한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통합을 이루기 위한 논의와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자주독립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개입 없이 남북측 주도로 한민족 통합 위원회가 설치되어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내 해상풍력단지를 조성 중입니다. 또한 2035년부터 휴전선 상하 200km 지역에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반도 38평화 벨트를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시범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양국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38평화 벨트에는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의 초기 모델로서 우선 향후 미래 사회에서 엄청난 수요가 예상되는 반도체 산업, 특히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특화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이를 공동 운영하며, 북측의 낙후된 사회문화 및 산업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과 양국 간 경제 격차를 직접적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남북이 연합단계에 이룩한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국가 단위의 사업인 만큼 우리 국민들의 아주 기대가 큼니다. 또한 전 세계인들도 주목하고 있으므로 아주 체계적으로 조성해야 하며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께서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통일 한국의 현황 및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브리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Chapter 3. 통일 한국 산업 현황 브리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준비한 보고 자료를 보면서) 첫 번째로 현재 통일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반도체 제조 분야에는 자체 인프라를 기반으로 일괄 생산하는 종합반도체와 특정 고객사나 반도체 설계전문업체로부터 위탁받아 제조만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은 현재까지 삼성이 세계 1위이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는 경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초미세 공정 파운드리부터 조립, 테스트, 패키징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만을 보면 TSMC 한 기업이 독자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성공시키고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이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앞으로 우리 미래산업의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만큼 우리도 국가 차원에서의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는 북측의 경제 자립과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산업 전반에 걸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통일 한국에서는 남측과 북측의 발전전략이 경쟁과 중첩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남과 북의 산업구조를 유기적으로 재편하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계획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두 지역 간의 기술 격차를 우려하여 무조건 신기술 혹은 첨단 기술 산업에 불리하다고 북한지역을 일방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되며, 통일과 그에 따른 경제통합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미래 경쟁력을 가진 산업들이 북한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북한 지역이 일정한 기술 수준과 역량을 갖추면 통일 한국의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이 제고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무위원들을 둘러보면서) 세 번째는 통일된 독일의 교훈을 벤치마킹하자는 것입니다. 2011년 이후 독일의 클러스터 정책은 융합적인 혁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 클러스터의 배경에는 통일 이후의 새로운 독일 연방 국가를 위하여 구동독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특정 기술, 과학, 비즈니스 기술 등을 정립하고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둔 정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지역 비즈니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산학연 핵심그룹과 연계한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독일 클러스터 정책이 완성되기까지 통일 후 독일이 겪은 상황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히틀러의 압력 아래에 군사용 렌즈를 보급하던 칼 자이스는 분단과 함께 기업도 동서로 갈라졌습니다. 통일 이후 독일 각지에 흩어진 기업을 통합시키기로 했지만, 동독 기업은 서독 기업 못지않은 기술 진보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체제였다는 한계점에 따라 2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지금은 예나 시 전체가 자이스를 중심으로 네트워크화 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선례는 통일 후 독일보다 경제적 격차가 심한 통일 한국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한쪽 사람들이 자본을 앞세워 다른 한쪽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을 때까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값비싼 교훈을 줍니다.

대통령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서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낙후된 동독의 드레스덴에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 학교와 연구소를 대거 유치하는 등 연구기관 밀집 지역으로 집중육성 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연구성과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인피니온, AMD, 폭스바겐 등 세계적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 주도의 지원은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의 선순환을 이끌었으며 유럽 최고의 첨단과학 도시로 거듭났고, 1인당 구매력 매년 7% 상승, 실업률은 최대로 감소하면서도 인구는 가장 빨리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바라보면서) 통일 한국의 산업 현황과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단순 브리핑만 기대했는데 독일 사례까지 들어주시니 더욱 이 해가 잘 되는군요.

우선 오늘 첫 안건으로 평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정책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간의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Chapter 4. 평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네. 그럼, 이제부터 반도체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반도체가 있으며 첨단산업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는 안보 자산이자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계 반도체 공급망은 미국, 유럽 등 제품 기술개발이 강한 국가, 한국, 대만 등 제조공정 기술이 강한 국가, 조립검사의 생산비용 우위성이 높은 국가 즉 중국, 베트남 등으로 수십 년 동안 생산 효율성을 도모하여 글로벌 분업화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미국과 중국 간의 첨단기술 패권 경쟁으로 인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급변하는 국제 기조 속에서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특히 통일 한국은 산업 전반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수입 불안정성을 크게 체감하고 있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자립도가 중요도에 비해 낮은 편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생산기지를 국내로 하고 안정적인 기술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미래 반도체 산업의 원천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초 밀착적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성장동력인 AI 반도체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8년 70억 달러에서 올해 2030년에는 1,179억 달러로 연평균 26.5% 성장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의 강국이지만 시스템 반도체 세계시장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17년간 정체된 상태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죠. (<표1> - 반도체 R&D 인력 현황을 제시하며) 해당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현상은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할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전문 인력이 다른 국가나 기업에 비해 한참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의 시장 전망이 매우 밝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표도 봐주십시오. (<표2> -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전망을 가리키며)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갈 전망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의 특성상 '주문형 생산'의 특징을 띄고 있기 때문에 많은 파운드리 시설 확충과 고급 설계 기술을 지닌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향해 호소하는 듯 간결하게) 대통령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

는 사업임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한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산업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을 위해서 시스템 반도체 생산이 필수적입니다.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중의 하나인 금은 현재 남한에서는 구하기가 용이하지 않은데 북한에는 핵심 광물인 텅스텐, 마그네슘, 실리콘 등 다양한 지하자원과 희토류들이 매장되어 있고,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한다면 통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지닌 인력난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경제성장 모델이 될 수 있는 평성 반도체 클러스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님의 말씀대로, 반도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은 우리나라에 너무도 중요한 정책입니다. 사업 계획 설명에 앞서 클러스터의 개념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클러스터란, 연관이 있는 산업의 기업과 기관들이 한곳에 모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산업집적단지를 뜻합니다.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 및 개발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연구소와 각종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벤처 캐피탈, 컨설팅 등의 기관이 한곳에 모여 있어 정보와 지식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양손을 모으며) 이제 전반적인 평성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 내에 삼성, 하이닉스를 비롯한 대기업과 기타 중소기업 등의 국내 반도체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 반도체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단순 반도체 제작 기업만을 유치하는 것이 아닌 시스템 반도체 활용 산업인 인공지능, 자율주행시스템 등 관련 업종의 기업 또한 유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밸류 체인 형태의 클러스터를 조성해 반도체 수직 가치 사슬 완성도를 더 높은 글로벌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맞춤 제작 전문인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교육기관, 연구기관, 개발기관의 유기적 혼합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선 우수한 전문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클러스터 내 대학과 연구소의 존재입니다. 기업은 산학협력 조성 체제를 통해 연구 이익을 극대화하기를 원하므로, 평성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도 이러한 협력 체제 조성을 위한 전문화된 대학교와 연구소의 설립 또한 필요합니다.

대통령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을 턱에 고이고는) 기업체와 교육기관, 연구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형태이다.. (말끝을 늘이고 다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바라보며) 괜찮은 구상이군요. 국가산업단지로의 조성을 기획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럼, 구체적인 단지 조성 계획부터 입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1> - 평성시 동남쪽 일대 지도를 보여주며) 저희는 새 클러스터를 조성할 구역으로 평안남도 평성시의 동남쪽인 상대동, 구교동 일대를 주목하였습니다. 먼저 평성시는 과학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1960년대 만들어진 신도시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고려하는 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산학협력입니다. 반도체 장비산업은 전문화된 구성품 생산업체와의 네트워크에 의한 긴밀한 협력관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가의 반도체 장비 부품 및 구성품의 공급이 용이한 장소로 선정해야 하며 기술력 있는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협력업체와의 교류가 쉬운 곳일수록 경쟁력이 있습니다. 평성시의 해당 구역은 평양시 최북단에 있는 은정 첨단

기술 개발구와 접하고 있는데, 은정 첨단기술 개발구에는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대학이 자리 잡고 있어 연구진의 교류에도 용이하며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및 지역 대학 연계 측면에서도 평성시에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유리하리라 판단되었습니다. 또 평성의 경우 평성 공업대학 외에 다양한 대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물류 경쟁력과 수송의 편의성입니다. 반도체 장비는 고가이며 크기가 큰 제품이 많기 때문에 고속도로나 국도로의 접근성이 수월한 위치가 유리합니다. 평성의 경우 인근에 평성역, 봉학역, 조금 떨어진 곳에 자산역이 있으며 평라선이 지나가고 평양에서 강계로 이어지는 1급 도로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평성~강동, 평성~순안 간 도로가 개설되어 교통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광상들의 중간지점에 있기 때문에 도로 개통 및 제반 시설 설립에도 유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평성시는 평양에서도 자동차로 30여 분의 거리에 있어 출퇴근이 용이하고 위성도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다가 고급 인력을 선호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조건에 가장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평성시의 서쪽은 산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친환경이 강조되는 만큼 산지를 훼손하지 않으려고 동쪽의 충적 평탄지를 찾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업용수 확보가 가능하며 평지인 곳을 반도체 산업 부지로 선정하고자 할 때 최적의 공간으로 추천됩니다. 장치 클러스터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때는 평지를 따라서 좀 더 북쪽으로의 확대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구체적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2> - 평성 반도체 클러스터 토지이용계획도를 보여주며) 위 지도는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만 주무부처와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일차적으로 계획한 평성 반도체 클러스터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전체 부지 면적은 11.78km²로 약 356만 평이며, 반도체 클러스터는 크게 4개 단지로 나누어집니다. 단지 조성은 과거 남측에서의 성공적이었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 용인 SK 반도체클러스터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먼저 북동쪽인 보라색 구역은 산업단지로 면적은 3.3km², 약 100만 평이며 반도체를 위한 2차 가공시설 및 6기의 반도체 공정 설비가 들어가는 규모입니다. 동남쪽 주황색 구역은 주거단지로 면적은 2.48km², 약 75만 평이며 생산단지와의 접경 구역과 하천 주변에는 녹지 및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남서쪽 파란색 구역은 대학 및 연구소 단지이며 면적은 2.24km²로 약 67.7만 평입니다. 북서쪽 빨간색 구역은 상업 및 기업 단지로 면적은 3.76km², 약 113.7만평입니다. 기업 단지 내에는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의 말씀을 참고하여 유사·연관업종의 인접 배치로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외국인 전용 기업 단지, 중소기업 단지, 대기업 단지를 각각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 전체적 단지 구성은 설정했지만 어떤 기업이나 시설들이 입주할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오늘 국무회의 또는 다음에 추가로 필요한 시설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면 유관 부처 및 부서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지원과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을 바라보면서) 계획도를 보니 구상은 좋아 보이는데 생산단지 지도가 굉장히 복잡해 보여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무총리를 향해) 네,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사진3> - 평성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계획도를 보여주며) P는 공장동을 말하는데 평성 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를 위한 핵심 광물을 고순도 원료로 가공하는 2차 가공시설부터 반도체를 생산하는 3차 가공에 이르는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와 위탁생산까지 모두 다 하는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복합동은 그런 원료와 유틸리티를 지원하기 위한 곳입니다.

다만 이러한 계획을 수행할 고급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관련 대학교를 설립 또는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재 양성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관련된 연구로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소가 필요합니다. 연구소와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결로 연구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연구자원을 협력하여 활용할 수 있고,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 능력을 확장하며, 나아가 미흡한 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Chapter 5. 산학연 연계 및 정책 지원 방안

대통령

(국무위원들을 둘러보면서) 그럼, 이제 평성 반도체 클러스터와 산학연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봅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와 관련해 제가 먼저 제안해 드려도 될까요? 사업 계획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클러스터 내 산학연 협력 시스템은 클러스터 내 기업 유치는 물론 후속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 국가의 모범 클러스터 사례인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대만 신주과학단지 등의 성공 요인은 모두 인재 양성과 연구 기능을 담당하는 명문대학교 및 연구소가 유치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을 바라보면서) 아까 평성 지역이 교육, 연구 인프라가 좋아서 선정하셨다고 말씀 하셨으나 어디까지나 북측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괜찮다는 이야기지 북측에 존재하는 리과대학, 국가과학원은 모두 남측 대학들보다 학업적 성과와 연구 수준이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평성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부 장관을 바라 보면서) 교육부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 장관

예. 우선 북측에 있는 교육 기관들은 국제적인 학술 교류가 적고 첨단산업 분야의 수준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교육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측의 국가과학원은 평양 국립과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남측 전문연구원을 지원하여 먼저 연구의 질을 향상할 예정입니다. 이 평양 국립과학원이 클러스터 내부에 있지는 않으나, 평성과 매우 가깝고 교통 여건이 좋은 점을 고려하여 반도체 연구소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교육부가 반도체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구상 중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우선 완전히 새로운 대학을 세우는 것과 해외 이공계 대학을 유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 대학을 설립하고 반도체 공정이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려면 학사 기준 4~5년 정도 소요되며, 해외 대학 유치 성공을 가정하더라도 3~5년이 소요되어서 시간적으로 우선 두 방법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4년 넘게 해외 대학 유치를 하나도 따내지 못했던 인천 글로벌캠퍼스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인프라 수준과 개발 상황이 더 낙후된 북측에 해외 명문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협의 결과 새롭게 유치될 클러스터의 교육 부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새로운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설립하여 평성과학기술원(Pyongsong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IST)으로 명명할 예정이며, 다른 과학기술특성화대학들처럼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리 감독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이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살짝 미소를 띠며) 알겠습니다.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IST는 다른 남측의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마찬가지로 교육부와 협력하여 MOU를 체결하고 대학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공동 프로그램과 인적 교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공계 학과도 개설되겠지만 반도체와 관련 있는 반도체 공학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과, 반도체 장비 공학과,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세라믹 공학과를 먼저 설립,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다른 선진국들에 인재가 유출될 가능성을 줄이고, 학생들이 PIST의 반도체 관련 학과들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다른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는 제공하지 않는 유럽 방식의 반도체 장학금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 신설되는 대학인만큼 메리트를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기업에서 학교 내에 국내외 일류회사들과 연계하여 산학 연구 협력 시설을 유치, 취업 시에 가산점 등의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강인한 목소리로)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측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향해) 예, 알겠습니다.

교육부 장관

(고개를 끄덕이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 장관

(국무위원들을 둘러보면서) 추가로 PIST가 신생 대학인 데다가 산통부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북측의 평균적인 대학 교육 수준이 낮은 것이 우려되므로 남측의 다른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KAIST, DGIST 등과 정기적인 학술회 교류를 통해 지식 수준을 제고시킬 것이며, PIST의 반도체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는 교수들의 수업 외에도 남측 반도체 전문가들이 촬영한 인터넷 강의 영상, 이를 시청할 스마트 기기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반도체 관련 학과를 복수전공, 부전공하려는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스마트 기기까지 추가로 지원한다면 비용이 막대할 텐데 현재 교육부에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 수준인가요? 만약 추가적 예산이 필요하다면 재원을 마련해야 하므로 미리 말씀해 주시죠.

교육부 장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한 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교육 시설에 관한 방안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된 것 같네요.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께서 평성 반도체 클러스터 내 기업 유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업 유치에 앞서 먼저 국가 차원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홍보활동인 “국가 IR” 행사를 개최한 뒤 반도체 인프라 선진국들과 순차적으로 반도체 협력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협력 방안으로는 첫 번째, 국내 이공계 대학과 국외 이공계 대학의 연구 협력 및 세미나 개최, 두 번째, 국내 반도체 기업과 국외 반도체 기업 간 비즈니스 포럼 개최, 마지막으로 평성 반도체클러스터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상호 간 협력을 주고받을 계획입니다. MOU를 체결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쌓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의 유치를 더욱 원활히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평성 반도체 클러스터의 혁신 주체인 ‘평성 반도체산업 협력 기구’를 결성하여 클러스터 내 상호 네트워킹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 기업의 투자유치 편의성을 위한 회사 및 공장 설립, 투자 심의, 근로 허가 등의 업무를 포괄한 원스톱 행정 기구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반도체 인프라 선진국의 지원책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반도체 신규 생산 시설에 최대 30억 달러를 지원하며, 반도체 설비투자과 관련하여 25% 세제 감면 혜택을 줍니다. 또한 전력/용수/폐수 시스템을 시에서 구축하고 운영해 기업은 인프라 사용 요금만 부담하도록 합니다. 유럽 연합도 반도체 기업에 투자 금액을 20~40%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반도체 인프라 선진국인 대만의 경우 투자액의 15% 세액 공제 혜택을 주며, 과학단지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장비와 재료에 관해 수입 관세 면제 정책을 펼칩니다. 미국과 비슷하게 기업은 인프라 사용 요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 통일 한국의 경우 시설 투자와 관련해 대기업에는 5%, 중견 기업에는 7% 정도의 적은 세액공제 혜택만이 주어지며 전력/용수/폐수 시설 관리비 또한 전액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이 적어야 클러스터 내 기업 유치에 우호적인 의사를 보일 텐데, 우리나라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통일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비용을 세금에서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과거에 세금 감면 정책을 펼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북측과의 경제 균형 발전과 통일 한국의 미래 경제 안정 고착화를 위해 당장 거점 기업 유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손을 들며) 그에 대한 방안으로 우리 기획재정부에서는 평성 반도체 클러스터에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임시세액공제법을 부활시키고자 합니다. 2023년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K-칩스법의 경우 반도체, 수소,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미래 이동 수단 등 국가 전략 첨단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인허가를 빠르게 처리해 신속히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였습니다. 12년 만

에 재도입했던 임시세액공제법은 2023년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국가전략 기술이 아닌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도 투자분에만 세액공제율을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 기준 기본공제가 기존 12%에서 18%로 상향 조정되어 그 해 기준으로 지난 3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2~3배 인상해 10%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면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기획재정부에서는 2035년을 기점으로 그 법을 부활시키면서 기간은 2045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중소기업은 30%, 대기업은 20%로 과거보다 더 많은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평성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사업에 국내외의 많은 유망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치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바라보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당시 임시세액공제법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 전략 첨단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전부 세액을 공제해 주어서 어느 하나의 분야도 확실하게 성장시키지 못하고 소수 대기업의 세제 혜택만을 목표로 했다는 비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특히 반도체 분야의 활성화에 더욱 집중된 정책을 추진한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의 제언을 깊이 새겨 반도체 분야에 집중된 정책에 대해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평성 반도체 클러스터 내 중소벤처기업 관련 사업에 관해 준비된 정책 안건은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다렸다는 듯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른 국내 팹리스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 업체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정과 상생을 통해 함께하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의 초기사업화 자금과 경영 안정화 자금, 기술개발, 융자·보증을 통한 지원으로 특성을 고려한 운전자금의 지원 한도를 두 배 이상 확대하는 창업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으로 국내 파운드리 기업들과 팹리스 기업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상생협의회를 통해 협력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신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성장하는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평성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타 산업시설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한 융자 등의 정책자금으로 국산화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개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설계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전문 인력의 기술 교육을 위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반도체 설계 인력풀 양성 정책과 관련된 연계 지원 정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코로나19 및 보호무역주의로 촉발된 글로벌 밸류 체인 재편의 가속화 때문에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품목을 지정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을 강화하여 극복했던 과거의 소재·부품·장비

전략이 떠오릅니다. 반도체 산업이 안보 자산으로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 현실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장관들께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는 믿음으로 긴밀하고 신속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감사합니다.

#Chapter 6. 반도체 핵심 광물 원료 확보 및 수송로

대통령

교육 시설 및 산학연 연계에 관한 방안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 주요 광물 공급에 대한 안건으로 넘어갈까요? 교육만큼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하고도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반도체 주요 광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핵심 공정 미래 선도 기술의 확보인데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께서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어... 그럼, (말끝을 늘이며 고민한다) 각 부처 장관님께서 모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반도체에는 다양한 첨단기술이 적용되며 반도체 제조만을 위한 전체 공정은 8대에 이를 정도로 복잡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생산에만 집중하지 말고 반도체 생산을 위한 재료를 모으는 과정부터 더 광범위하게 살펴본다면 반도체를 위한 광물 채취, 광물의 가공, 반도체 생산까지의 3단계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광산에서 반도체를 위한 광물을 채취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얻은 광물 원석의 전처리를 거쳐 반도체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고순도의 광물로 1차 가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얻은 순수 금속 원료를 가공하여 반도체 부품으로 만들고 부품을 이용하여 완전한 반도체 상품으로 만들어 냅니다. 마지막에 각종 금속 원료와 부품을 이용하여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8대 공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핵심 광물은 규소, 텅스텐, 마그네슘, 금 등입니다. 먼저 규소는 우리에게 익숙한 실리콘입니다. 그리고 익숙한 만큼 얻기도 굉장히 쉬운데, 유리의 원재료가 되는 모래를 가공하면 규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규소는 잠시 걱정을 내려두겠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반도체 생산에 있어 관건은 희귀 금속들입니다. 예를 들어 99.999%의 초고순도 금은 반도체 공정 과정 중 가장 마지막, 8단계인 패키징 단계에 쓰입니다. 반도체가 비싸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런 핵심 광물 원료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문제인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바라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북한 지역에서 이런 광물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우선 말씀하신 대로 금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진4> - 북한의 주요 광산(금)과 평성

시 지도를 보여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우리 부처 산하 광물자원공사와 함께 상의해 본 결과 북측의 토지에 대한 연구는 최근 새로 들어갔기에 추가로 광상이 발견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 금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적 광상은 총 9개로 (각 광산을 가리키며) 황해남도 장연군의 락연광산, 배천군의 은봉광산, 황해북도 수안군의 수안광산, 연산군의 홀동광산, 강원도 안변군 서학광산, 평안남도 회창일대 신흥광산, 운산군 운산광산, 평안북도 동창군 대유동광산, 선천군 선천광산입니다. 여기에서 광상이란 광물이 모여있는 곳으로 광산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운산광산만 해도 금속 기준 잔존 매장량이 금만 15톤이며 이외에도 홀동광산의 경우 845톤의 금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앞서 말씀드렸듯 저희가 클러스터 조성 부지로 평성시를 꼽은 이유는 이렇게 광상의 위치와 평성까지 선으로 그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 광상으로부터 중간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진5> - 북한의 주요 철도 노선 현황 지도를 <사진5>과 함께 보여주며) 다음은 북한의 주요 철도노선 현황 그림입니다. 또한 일부 광상들은 기존의 철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운산광산의 경우 평성역까지 약 230km의 거리를 평라선으로 수송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광상의 개발이 들어간다면 광상부터 철로 또는 클러스터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새로 개통하여 수송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국무총리

(끼어들며) 반도체 관련 지하자원의 매장량에 대한 연구가 더 빠르게 이루어져야겠군요. 당연한 순서이겠지만 매장량부터 전체 규모를 추산한 후에 도로를 개통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통령

수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반도체 클러스터를 순환하는 트램 계획도 수립했다고 들었습니다. 평성 반도체 클러스터 순환 트램의 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예, 맞습니다. 트램은 광물 수송문제와 더불어 인력 수송문제의 해결을 위해 트램을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구상하게 된 정책입니다.

(<사진6> - 평성 클러스터 순환 트램 계획도를 보여주며) 위 계획도상에서 검은색 선이 트램이 지나가는 노선이며 노란 지점이 역입니다. 트램은 총길이가 15.9km이며 단지별 구역마다 평균 0.9km 간격으로 역을 배치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산업단지에 4개의 역, 상업 및 기업 단지에 5개의 역, 대학 및 연구소 단지에 4개의 역, 주거 단지에 4개의 역이 위치합니다. 하나의 노선은 주거 단지를 시작으로 산업 단지를 종착역으로 하며, 다른 노선은 반대로 산업 단지를 시작 역으로, 주거 단지를 종착역으로 삼아 약 40분의 시간으로 클러스터를 순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반도체 클러스터를 보면 출퇴근 시 교통의 혼잡문제로 이른바 ‘출근 지옥’이라고 불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반도체 클러스터의 규모가 확장되고 이웃한 평양, 남포 등 대도시로부터 신규 인구가 유입되어 도시가 커지더라도 출퇴근 시간대에는 배차간격을 더 좁게 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할 것이므로 예상되는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철도인 평

라선과의 연결 또한 고려 대상입니다.

국무총리

트램의 종류에는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트램을 구상하신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그리고 꼭 트램이어야만 하는지, 경전철처럼 다른 대안은 없는지, 가장 경제적인 방안인지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평성 클러스터 순환 트램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트램처럼 동력을 전기선으로 공급받는 것이 아닌 배터리로 공급받는 '무가선 트램'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트램은 프랑스 파리, 홍콩 등 50여 개국 2,300여 개의 노선이 운행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도입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지하철에 비해 지반을 흔드는 정도가 강하지 않아 반도체 클러스터에 설치할 수 있으며, 경전철에 비해 경제적으로 효율적입니다. 평성 반도체 클러스터에 외곽 트램을 설치한다면 효율적인 이동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노선이 아닌 만큼 클러스터 단지 외곽 트램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트램 사업을 추진하길 제안해 봅니다.

또한 추후 연계 교통 구축대책과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처리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Chapter 7. 지속가능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대통령

(천천히 근엄하게)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살펴보니 꽤 실현 가능성이 있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측의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국토 인프라 구축, 교육 시스템 등의 이제까지 논의된 모든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에너지 공급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북측의 전통적인 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은 현재 전 세계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탄소 중립 추세와 맞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하여 환경적 측면으로 고려할 요인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 장관

(함박웃음을 지으며 기다렸다는 듯)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손을 모으며) 안 그래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정말 깊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성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전력공급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은 탄소 중립 추세와 어긋납니다. 기후변화협약체인 IPCC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환경 보존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한번 쳐다보고는) 이에 우리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하여 평성 지역 전력 공급량 확충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년 뒤 착공 완료되는 해주만 해상풍력단지의 전력을 끌어올 생각입니

다.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개성과 해주를 포함해 남측의 인천까지 연결된 지역으로, 서해를 남북 간 군사 충돌 위험지역에서 공동 어수로 수역 설정,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해주항 개발사업 등 경제와 평화가 공존할 수 있는 공동번영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합의안입니다. 해주만의 조력 잠재발전용량은 2,300MW이므로 남측의 시화호 조력발전 단지에 상응하거나 더 큰 발전 용량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에는 막대한 양의 전력이 필요하므로 단기간에 높은 비율의 신재생 에너지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공장을 초기부터 스마트 팩토리로 설계한다면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제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시 점차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3>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소비량 영향을 보여주며)

이러한 맥락에서 반도체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로 건설하며 점차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해 감으로써 전 세계의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가고자 합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를 성공적으로 착공했을 시 핵심 성공 요인 중 기술 요인에 있어 환경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무총리

반도체 산업에서의 물관리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매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부 장관

반도체는 원재료를 절삭하거나 각종 화학물질을 제거할 때 엄청난 양의 정제된 물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고 하면 가장 염려되는 환경 문제가 공업용수와 오·폐수 처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된 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네, 환경부에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러스터 내 입주 기업에 '신 환경경영전략'이라는 새 방침을 고수하게 하되, 이와 관련된 인프라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협의 결과 클러스터 내 정부 지원으로 '에코 구역'을 건설해 반도체 제작 후 발생하는 산업 오·폐수를 처리하고 지역 내 하수처리장에서 끌어온 폐수를 반도체 제조에 사용할 만한 공업용수로 정화한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성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는 최첨단 폐수처리장 설치와 공업용수 재활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조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자연에서 추가로 취수하지 않고도, 공공하수처리장에 적용된 다단계 정화 처리를 거친 방류수를 재이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인 물 부족 문제 해소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단지에서부터 대동강까지 수로로 연결해 완벽하게 정화한 공업용수는 대동강으로 방류할 예정입니다. 대동강까지의 수로 건설 방안은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장관

(국무위원들을 둘러보며)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산업활동, 특히 제조 활동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환경문제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친환경 경영을 적극 도모해야 합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환경성과측정을 통한 관리가 꾸준히 되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환경오염이 없도록 선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더 열심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Chapter 8. 마무리 발언 및 의결

대통령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손뼉을 치며) 자 이제 의결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평성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각 부처 장관님께서 현실적이고 참신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고, 환경부 장관님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대전, 세종, 천안을 지나 기존의 반도체 생산단지인 평택, 용인, 기흥, 화성, 이천과 연결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Road NO 1. 이 이제 통일된 국가의 평성까지 연결되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구축된다면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국가 반도체 생태계가 튼튼하게 형성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군요.

(국무위원들을 둘러보며) 평성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된 정책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기에 현 시간부로 정책 추진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 장관님은 개인 PC를 통해 전자투표로 가, 부 의사를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 장관들의 표결이 완료된 후) 네 표결 결과 찬성 9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만장일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만장일치로 평성 반도체 클러스터 정책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으로 땅·땅·땅 3번 두드린다)

일동

(밝게 웃으며 모두 박수를 친다. 시끌벅적한 소리)

대통령

(큰 목소리로) 이상으로 국무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 장관님, 남북측 경제 격차 해소 및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반도체라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밝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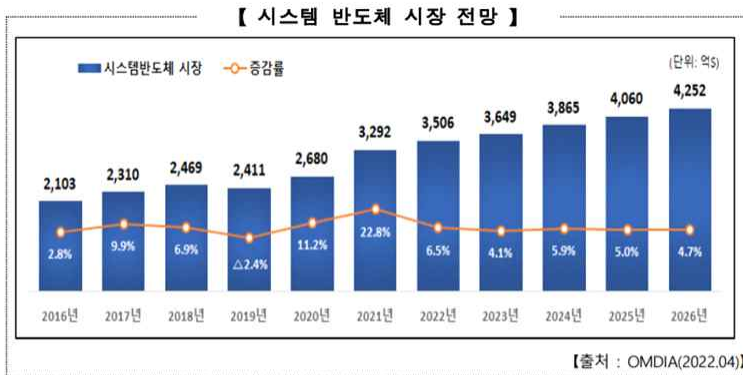
모의국무회의에서 이용되는 첨부 자료

<표1> - 반도체 R&D 인력 현황

반도체 R&D 인력 현황

파운드리	삼성 파운드리 (2만명)	TSMC (6만명)
시스템반도체	삼성 시스템LSI (1만명)	퀄컴 (4만5천명)

<표2> -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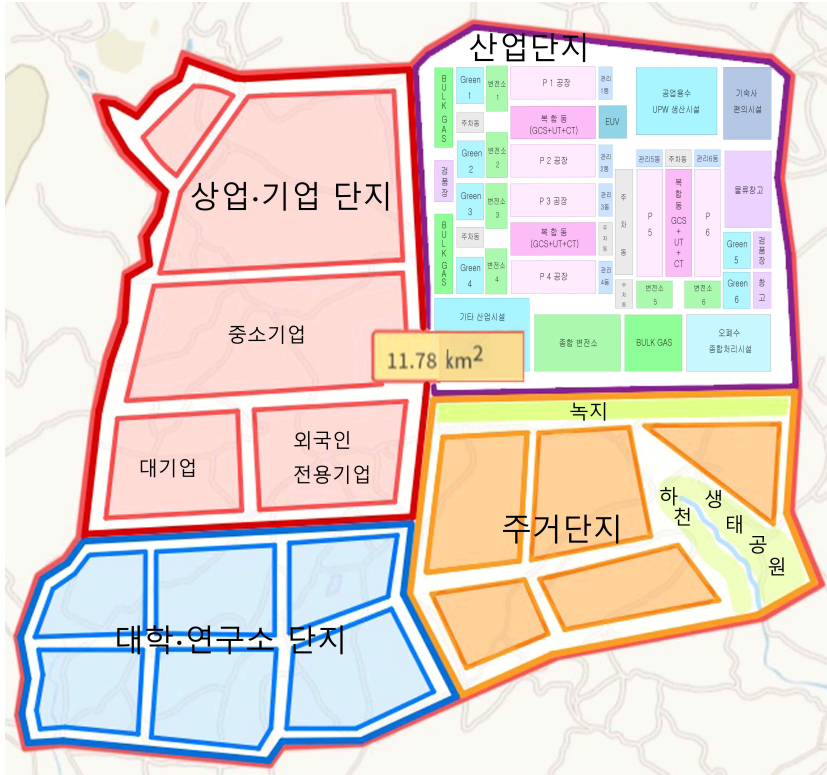


- 시스템 반도체 세계시장은 약 50~60%(메모리의 약 1.5~2배) 수준이며, '주문형 생산' 특성으로 수요-공급이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음

<사진1> - 평성시 동남쪽 일대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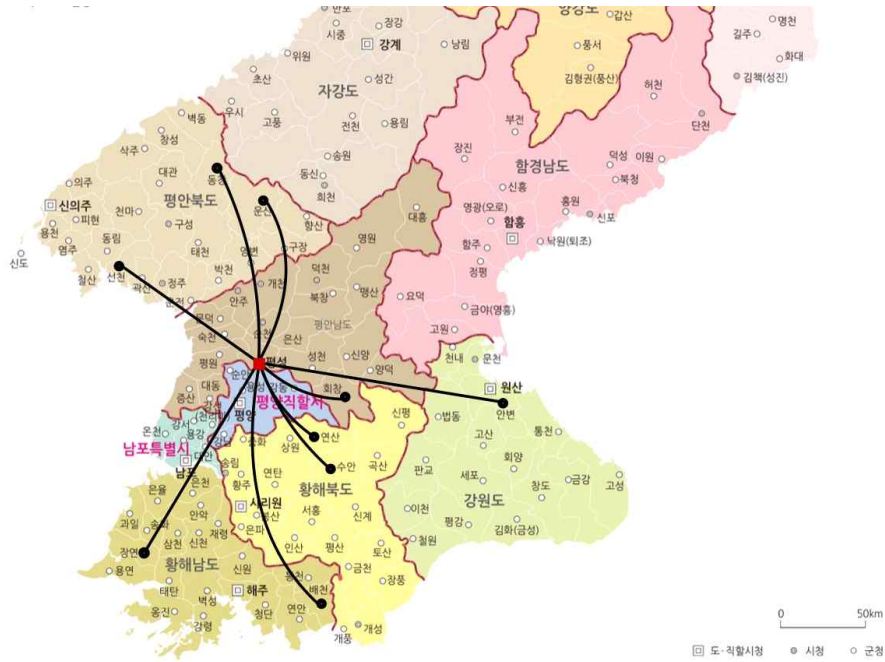
<사진2> - 평성 반도체 클러스터 토지이용계획도



<사진3> - 평성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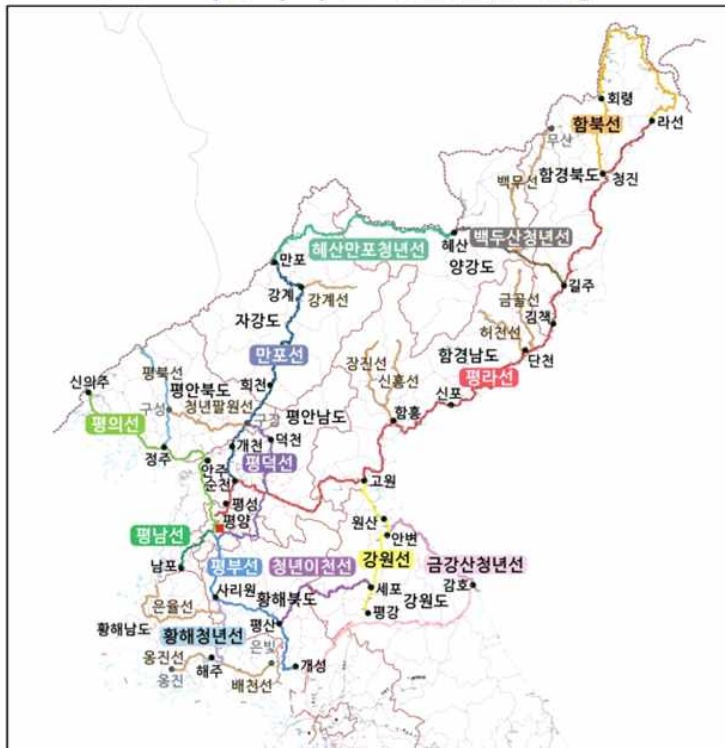


<사진4> - 북한의 주요 광상(금)과 평성시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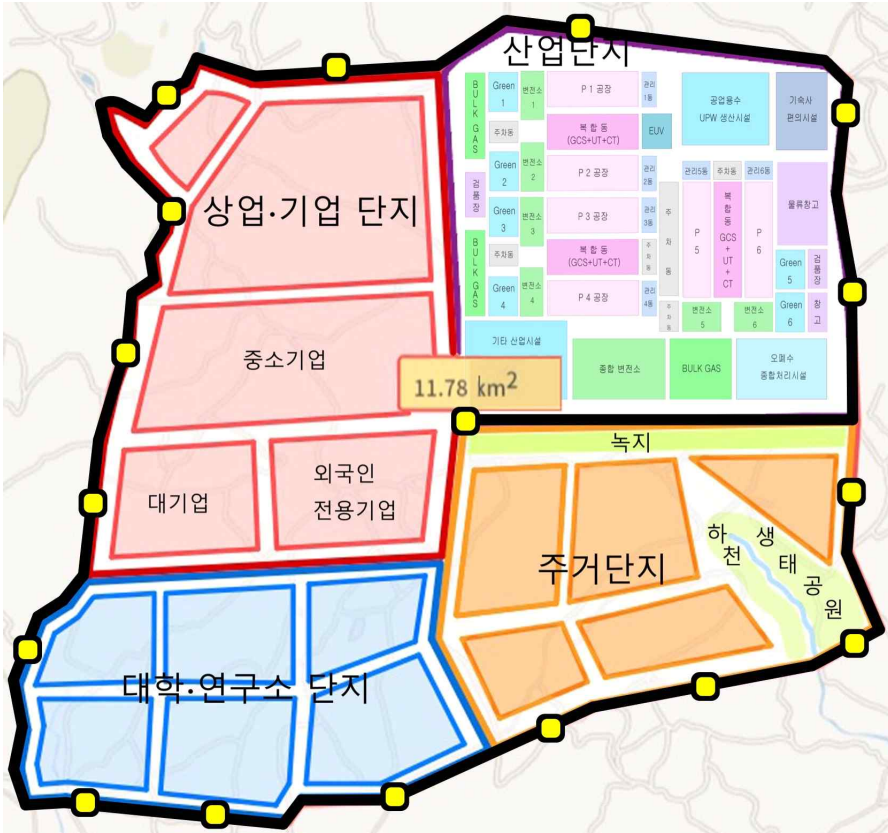


<사진5> - 북한의 주요 철도 노선 현황 지도

북한의 주요 철도노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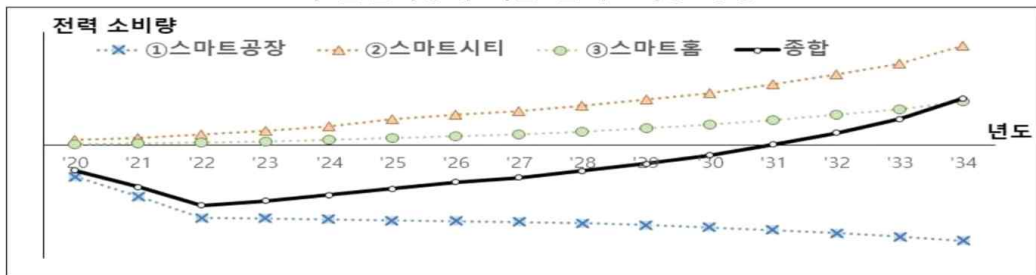


<사진6> - 평성 클러스터 순환 트램 계획도



<표3>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소비량 영향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소비량 영향 >



4. 수상 수기

1) 최우수상팀 수상 수기

“통일 후 우리가 통일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020년에도 북한지역 그린 MICE 사업을 주제로 하여 제6회 통일모의국무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예선 통과라는 결실을 얻었지만, 결선 진출에 실패하여 아쉬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기회가 닿아 학교 내 동아리 3명, 희망자 6명을 모집하여 해당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의 목표는 무조건 결선 진출이며 결선 진출 후에는 전국 우승이 목표라는 포부를 늘 가슴에 새기며 대회 준비에 임했습니다. 바이오, 연금개혁, 문화단지 조성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통일 후 북한 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는 희망에 차게 되었습니다. 다만 북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통일 후 실질적으로 한반도 내 경제적 격차를 줄이며 실질적인 부를 가져다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뜬구름 잡는 사업이 아닌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아울러 북측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통일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통해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측면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우리 팀은 지난 몇십 년간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반도체에 주목하였습니다. 대만과 중국 그리고 우리의 우방인 미국에게 까지 반도체에 밀려 고전하고 있는 현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전 중이지만,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다시 초격차 또는 신격차로 나아가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 있어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우리 팀은 시스템 반도체라는 아이디어를 들고 나와
북한 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실질적 이익 창출을 도모하는 동시에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통일 한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정책을 구상했습니다.
이 정책을 구상하고 최우수상을 받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간에 주제를 바꾸는 과정에서, 많은 다툼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툼은 우리 팀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쓴소리하지 않는 집단은 죽은 존재와 같다는 말이 떠올라
마음껏 비판하고 쓴소리를 하도록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팀을 이끌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소한 다툼이 팀원 사이의 유대감을 향상시키며
하나 된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최우수상이라는 목표를 늘 가지고 대회에 임했지만,
어느 순간 저희 팀의 목표는 수상이 아닌
실제 통일 후 우리가 통일 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자료를 찾으며
이 분야도 북한에 적용할 수 있겠다는 언급이 종종 나오며
이 대회가 진정으로 대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우름팀은 이번 수상 경험을 전파 및 전수하여
통일에 대해 무관심한 이 세대가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 있는 세대로 변화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하기를 원합니다.

2) 우수상팀 수상 후기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고, 설득하는 자세,
지치고 힘들어도 서로가 맡은 역할을 마무리하는 협력의 자세까지
지식보다 지혜를 많이 배워 의미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주역이 될 통일한국의 미래를 상상하고,
직접 구체적으로 그려나가며
잠시나마 현재에서 벗어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통일모의국무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관계자분들과 참가자분들에게 감사 인사 전합니다.
저희 ‘이음혜움’은 통일한국이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며
여러 부분에서 ‘이음’의 가치를 실현할 ‘생각’을 프로젝트에 담았습니다.
정치학과 북한학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모여
바쁜 시간을 쪼개 새벽까지 회의하며
통일한국에서 실현할 프로젝트를 고민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결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우수상이라는 값진 결실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팀장이었지만 믿고 잘 따라와 준 이음혜움 팀원들에게
진심어린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환경부 장관 강연지입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통일한국의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논리적인 전제조건과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팀원들과 서로 머리를 맞대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불같이 토론하며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법무부 장관 강지훈입니다.
통일한국에서 실현할 프로젝트를 위해
철저한 전제조건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북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김대성입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다양한 토픽을 접하며 세상에 배울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타지역에서 서울까지 회의하러 왕복하던 시간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토론한 시간들이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동국대 학생으로서 마지막 도전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어서
너무나 뜻 깊은 활동이었습니다.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민수입니다.
이음혜음 팀원들이 모여서 미래 통일한국의 모습을 구상한다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었습니다.

**토론을 통해 주고 받는 다양한 의견들의 현실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며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결선장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촉박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김수안입니다.
통일을 상상하며 다양한 정책, 흥미로운 사업 계획들을
세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편으론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상상 속에 머무르지 않을까 하여
공허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음혜음의 다양한 고민들이
공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길 진심으로 바라며 대회에 임했습니다.
이번 팀 프로젝트를 통해 논문에 있는 지식들이 아닌
사람, 조직, 사회에 대해 더 많이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고, 설득하는 자세,
지치고 힘들어도 서로가 맡은 역할을 마무리하는 협력의 자세까지
지식보다 지혜를 많이 배워 의미 있었습니다.**

북동해양미래도시청장 송민준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주역이 될 통일한국의 미래를 상상하고,
직접 구체적으로 그려나가며
잠시나마 현재에서 벗어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촉박한 시간이 덮치고,
모두가 한 번에 모이지 못하고,
당장 대본이나 질문을 준비해야 해서 앞길이 막막하더라도,
팀이 있기에 마침내 결실을 맺어낼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없지만
결선장에서 우리가 가진 역량들을 전부 보여주고,
준비한 것들을 모두 말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장관 오찬주입니다.
통일한국을 그릴 때는 논리성, 타당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신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여러 의견을 낸다면
모두가 예측할 수 없는 기발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 두 달 간 팀원들과 의견을 조정하며 하나의 아이디어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외교부, 행정안전부 장관 하준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협업이라는 건 정말 큰 노력을 요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팀원들끼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하나의 생각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느꼈던 건,

**자신의 주장과 상반되는 주장을 들어야
이전에 착안하지 못했던 점까지 보완한 방안들을 반영해
최적의 대안 도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래 통일이 이뤄진다면 북한 지역에 대해 정말 무수한 양의 사업과 안건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장려상 1팀 수상 수기

"The better world is possible"

우리의 정책과 논의가 통일한국이라는 '더 나은 세상'에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팀과 함께 대회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하다." 이는 코스몐이 추구하는 방향이자,
우리가 통일한국으로 증명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몐은 우리의 이러한 과제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보건의료는 가장 보편적으로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고려의학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전통의학이라는 주제가 바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제를 선정한 후 팀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정책이라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고,
의견 충돌도 많았지만,
결국 우리의 정책이 잘 구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 동질성 회복이 통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요덕전통의학단지' 조성을 주제로 고안했습니다.
전통의학은 동의학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하여,
남과북 각각의 전통의학으로 자리 잡은 한의학과 고려의학의 융합입니다.

남북의 전통의학은 2018년까지 지속적인 교류를 해왔으며,
한민족의 '우리'의학입니다.
요덕정치범 수용소가 위치해있는 요덕이라는 비극의 땅에
'요덕전통의학단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희망의 땅으로 변화시켜
민족 동질성 회복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정책과 논의가 통일한국이라는 '더 나은 세상'에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좋은 인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재황이, 국무총리 수현이, 기획재정부 장관 명관선배, 교육부 장관 나영이,
보건복지부 장관 예지, 국민화합부(통일부) 장관 지현이, 법무부 장관 혜원이,
환경부 장관 유현이 다들 너무 수고했고,
여러분이 있었기에 코스몹이 예선, 결선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어요.
팀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는데 잘 따라와 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시험기간 주말에 시간을 내서 응원와 준 서현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모두,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배울 점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에 하나의 좋은 경험이 되었길 바랍니다.

대회 준비 과정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또, 심사위원분들과 진행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결선에서 경쟁했지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게 해준
이음혜음, 아우름, 한국정치연구회 모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여러 팀과 함께 대회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같습니다.**

2018년 이후 끊긴 남북 전통의학 교류가 다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코스몹은 통일한국이라는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언젠가 통일한국에서 ‘요덕전통의학단지 조성’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길 바라며,
통일모의국무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장려상 2팀 수상 수기

여름 날씨로 인해 녹록해진 회의실에서 늦게까지 고생했던 기억,
쉬는 시간에 함께 웃으며 즐거웠던 기억,
서로가 힘든 상황에서도 함께 웃으며 회의를 진행했던 기억들...
모두 뒤돌아보면 대회의 과정 전반에 녹아 있었습니다.

처음 대회 준비를 시작할 때 많은 후배들과 함께할 수 있는 대외활동을
도전해 보자는 마음가짐으로 통일모의국무회의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아리에 있는 부원들 중 참여하고 싶어 하는 인원들 중 가
장 열정이 넘치는 팀원들과 함께 팀을 꾸려 이번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이번 대회에 참여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매일 늦은 시간까지 함께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쉬는 날도 반납하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대회의 준비를 시작하기 전
저희는 통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의 미래를 실현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각자 발표하고,
다 같이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많은 생각들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기존의 통일모의국무회의에서 나오지 않은 형태와 아이디어를
녹일 수 있는 안건을 채택하였고,
최종적으로 ‘공유 하천’이라는 주제에서 뻗어나간
‘CRPP 추진계획’과 ‘AQUA-BELT 조성 사업’이 탄생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공유 하천’이라는 주제를 어떤 식으로 확장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등의 고민이
서류접수의 직전까지 저희와 공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팀원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끊임없이 보완해나가며 안건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눈 끊임없는 고민과 대화는
이후 대회의 합격 발표와 함께
다음 관문을 준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름 날씨로 인해 녹록해진 회의실에서 늦게까지 고생했던 기억,
쉬는 시간에 함께 웃으며 즐거웠던 기억,
서로가 힘든 상황에서도 함께 웃으며 회의를 진행했던 기억들...
모두 뒤돌아보면 대회의 과정 전반에 녹아있었습니다.

이런 기억들이 모여 이번 통일모의국무회의는
단순한 대외활동이 아닌 12명의 팀원들의 추억이 된 것 같아서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회에서 얻은 결과 그 자체보다
함께 고생하며 쌓은 기억이 좋은 추억이 되어
나중에 다시 모이면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만들어 낼 것 같아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떠나서 부족한 팀장을 만나서 많이 고생했지만,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잘 따라와 준
우리 팀원들 모두에게 고맙고, 고생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팀장보다 훨씬 훌륭한 팀원들을 만나
힘들 수 있는 일정도 잘 마무리하고, 좋은 결과도
이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회장으로써 항상 적극적으로 도와준 윤서, 분위기 메이커 수현, 의찬,
다른 일정들로 바쁘지만 열심히 해준 정찬, 예인,
가장 열심히 해주고 의지가 된 연우, 항상 열심히 참여해준 성원, 현수,
그리고 귀여운 막내들 영재, 수연, 시현이까지 모두들 고생했고
다 함께 웃으며 마무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번 통일모의국무회의를 통해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과 좋은 추억을 쌓아서 개인적으로도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통일모의국무회의들을 통해
미래에 당면할 통일 한반도를 완성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5. 예선 및 결선 경연 현장 (2024년 제10회)







2025 제11회
대학생 통일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